

# 여행: 아웃바운드 올해 최대 기록 전망, 인바운드는 어디로 가시나

## 8월에도 출국자 수가 다했다

2017/09/27

### ■ 10월 추석 가장 연휴 앞두고도 성수기 내국인 출국자 수 증가세 견조

8월 승무원 제외 내국인 출국자 수는 약 211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3% 증가했다. 7-8월 전통적인 여행 성수기에 이어 추석 연휴까지 출국자 수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10월 추석 연휴 기간(9월30일~10월9일)에는 약 110만 명의 내국인 출국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일수와 비교해 긴 연휴가 여행 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는 황금연휴 효과와 더불어 여행 소비 증가 트렌드가 출국자 수의 견조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내국인 출국자 수는 2,478만 명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2018년에도 출국자 수 증가는 계속된다

15년, 16년 내국인 출국자 수(승무원 제외)는 각각 21.5%, 16.5% 증가했다. 올해도 황금연휴에 힘입어 출국자 수의 두 자리 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도 출국자 수의 높은 성장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는 시점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외부 이슈가 없다면 출국자 수 증가는 견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유는

1) 2018년 휴일 수는 2017년과 비교해보면 총 119일로 2017년과 같다. 올해만큼의 장기 연휴가 부재하다는 것이 다르지만 여행객 분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단거리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LCC 신규 취항과 노선 증편으로 항공사 간 경쟁 심화로 인한 항공권 평균 단가 하락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행 성수기와 비수기의 경계 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3) 재출국자의 증가: 제한된 소비 지출 내 여행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지출 우하향 하는 반면 13년 이후 여행비 지출의 우상향 트렌드는 지속되고 있다. 4) 베이붐세대가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2020년부터 고령층의 소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와 비교해 은퇴 후 일본 시니어의 소비패턴과 비즈니스 변화를 살펴보면 관광과 레저 중심의 소비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8년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04만 명으로 1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Analyst 조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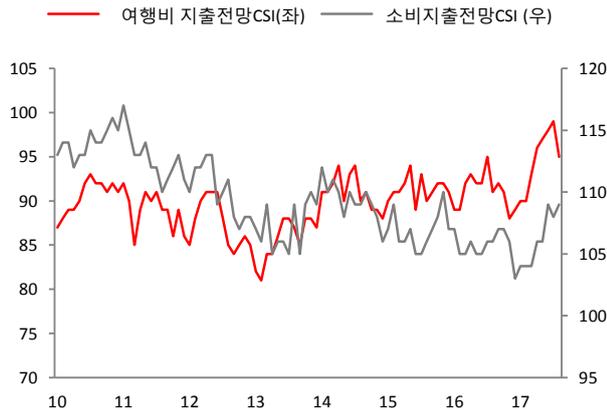
(2122-9209)

kjcho@hi-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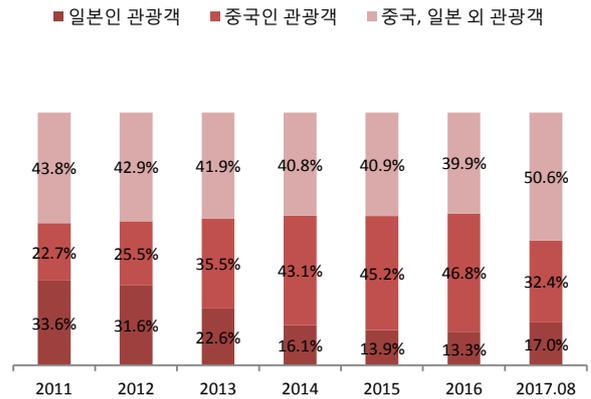
## ■ 8월 외래객 입국자수 감소, 중국인 관광객 회복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

8월 외래객 입국자 수는 110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7% 감소했다. 주요 방한 국가인 일본 입국자 수는 전월대비 성장률이 +0.6%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중국 국경절(10월 1일~8일)과 중추절(10월 4일)을 기점으로 회복을 예상했던 중국인 관광객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8월 중국인 관광객 수는 약 34만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61.2% 감소했고, 16년 기준 전체 입국자 수의 46.8%를 차지하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7년 8월 누적 기준으로 32.4%로 대폭 감소했다. 전월대비 감소폭은 줄어들었으나 올해 여행업체의 인바운드 사업을 담당하는 호텔 및 면세 사업의 실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1> 소비지출과 여행비 지출 전망: 소비지출 우하향하는 반면 여행비 지출은 우상향하고 있음



<그림 2> 외래객 방문객 중 중국 및 일본 비중 추이: 3월 금한령 이후 중국인 관광객 큰 폭으로 하락



자료: 한국은행, 하이투자증권

자료: 관광정보시스템, 하이투자증권

<표 1> 일본 시니어의 소비패턴과 관련 비즈니스의 변화

|                        |  |
|------------------------|--|
| 가족이 아닌 나(부부)를 위한 소비    | - 자녀 독립 이후 가족 뒷바라지에서 해방, 나를 위한 소비 증가<br>- 가격이 비싸더라도 성능이 좋고 사용법이 간단한 전자제품 인기, 소량포장 식료품 시장 성장  |
| 재택소비와 평일소비 트렌드 확산      | - 레저 및 대형상업 시설 중심으로 비싸고 사람이 붐비는 '주말과 성수기'를 피해 '평일과 비수기' 소비를 즐기는 중·고령 세대 증가<br>- 현역시절 컴퓨터를 다루 본 경험이 있는 중·고령들은 홈쇼핑 뿐 아니라 인터넷 쇼핑 이용 활발  |
| 여가(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소비시장 확대 | - 은퇴 후 여유시간이 많아지면서 관광과 레저, 스포츠, 문화, 교육 분야 중심으로 중·고령 세대 소비 확대<br>- 2030시절 소비트렌드를 이끌던 단카이 세대는 은퇴 후에도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소비를 확대하는 새로운 소비 문화 형성 |
| 건강증진 및 유지관련 소비 급성장     | -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를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강한 중·고령 세대 중심으로 안티에이징, 건강보조식품 시장 급성장   |

자료: 2020시니어 트렌드, 하이투자증권